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확고히 고수한 역사적인 다홍왜회의

최 수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홍왜회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주의 기발을 들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그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벌린 대사상전이였다.》(《김일성전집》 제98권 68페이지)

다홍왜회의는 혁명대오를 와해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첩모략책동과 그에 속아 넘어간 배타주의자들, 종파주의자들의 반혁명적행위로 말미암아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진행되여 조선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민생단》투쟁에서 좌경적편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부터 동만당지도부인물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리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시였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진행된 지난 시기의 논쟁은 논쟁으로 끝나고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채택하는것으로 되어야만 반《민생단》투쟁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것을 동만당지도부에 제기하시였다.

만주성위의 순시원도 때를 같이하여 이러한 회의소집을 발기하였다.

다홍왜회의가 소집되게 된 동기는 간도지방의 사업을 료해하러 내려왔던 공청 만주성위 순시원이라는 사람이 동만지방 조선사람들의 70%가 《민생단》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보고를 성당조직에 제출하였기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주체24(1935)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왕청현 다홍왜에서 당 및 공청 간부회의가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홍왜회의에서 민족배타주의자들, 좌경분자들과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시여 우리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홍왜회의를 통하여 무엇보다먼저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적편향을 바로잡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였다.

당시 좌경배타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동만에서 활동하던 조선혁명가들에게 《민생단》의 감투를 씌워 혁명대오에서 제거하려고 비렬하고도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동만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70%, 조선혁명가들의 80~90%가 《민생단》이거나 그 혐의자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고나오면서 수많은 혁명가들을 처형하거나 혁명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다.

일제의 문건에서도 《민생단》이 겨우 7~8명이였다고 기록되어있었지만 권력욕에 환장이 된 《숙반》의 집행자들은 그 7~8명을 색출한다고 하면서 무려 2 000여명의 자기편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하였다.

항일전쟁의 역사는 무수한 적과의 교전을 기록하고있지만 아무리 격렬한 전투에서도 20~30명씩이나 전사자를 낸적은 없었다. 그런데 동만의 유격구들에서는 20~30명의 혁명가들이 《민생단》이라는 루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무리죽음을 당하곤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동만의 조선사람들은 거의다 《민생단》이거나 그 혐의자들이며 조선사람들은 간부로 될수 없고 민족해방의 구호를 들

어도 안된다는 그릇된 주장을 들고나왔다.

론쟁이 열기를 띠기 시작한것은 공청 만주성위 순시원이 보고에서 동만에 있는 조선 사람의 70%, 조선혁명가들의 80~90%가 《민생단》이거나 그 혐의자들이며 유격구가 《민생단》의 양성소라는 종래의 견해를 되풀이한 순간부터였다. 회의분위기는 그의 보고를 지지하는데로 기울어졌다.

회의에서는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저지른 죄상을 단죄하며 편협한 민족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조선혁명의 주체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첨예하고도 심각한 사상투쟁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좌경분자들의 견해의 허황성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그리고 자신께서 몸소 료해하신 과학적자료에 기초하여 론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떤 물질이든지 본래의 구성요소에 다른 요소가 80~90%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 물질은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과학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동만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이것 역시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다, 그들이 만일 《민생단》이라면 무엇때문에 3년동안이나 만성적인 봉쇄상태에 놓여있는 유격구들에서 엄동설한에 집도 없이 입을것도 입지 못하고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적들과 힘에 겨운 싸움을 하여왔겠는가, 조선혁명가들의 80~90%는 고사하고 그 십분의 일인 8~9%만 《민생단》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음놓고 회의를 할수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의장주변에서는 지금 조선사람들로 편성된 1중대가 완전무장을 하고 우리들에 대한 경위임무를 수행하고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만인민의 대부분을 《민생단》이라고 략인하는것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며 이 견해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시였다.

정의감에 불타는 사리정연한 론리앞에서 좌경배타주의자들은 움츠러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회의에서는 간부문제에 대하여서도 치렬하게 론쟁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수민족만이 간부로 될수 있고 조선사람은 소수민족이기때문에 다수민족을 지도할수 없으며 더우기 조선혁명가들은 종파적습성과 동요성이 많고 반동화되기 쉽기때문에 간부로 될수 없다는 그릇된 주장을 들고나온데 대해서도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적이나 소속, 인구의 다수가 간부선발의 기준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이것은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능력을 위주로 하는 간부선발배치원칙에도 어긋나며 조선사람들이 동만혁명운동을 개척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한 력사적사실과 그들이 동만인구에 있어서나 간부, 당원구성에서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있는 현 실태를 외면하고 능력도 자질도 없는 사람들을 다수민족출신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등용시키는 경향은 반드시 시정되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였다. 그리고 동만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혁명가들의 절대다수가 그 어떤 파벌에도 관여하지 않은 참신한 새 세대들이고 일부 파벌에 속해있던 사람들도 혁명적으로 개조되었다는데 대하여서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처럼 조선사람들을 배척하고 확대하는 길로 집요하게 나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결방살이를 더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홍왜회의이후 주체24(1935)년 3월에 열린 요영구회의에서도

조선혁명가들의 자주적립장과 반《민생단》투쟁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반《민생단》투쟁에서 나타난 좌경적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반〈민생단〉투쟁에서의 극좌적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의 위기를 구원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1935년 2~3월에 걸쳐 왕청현 다홍왜와 요영구에서 열린 회의들이였다.

이 회의들에서 제1차 북만원정에서 방금 돌아온 **김일성**은 축한에 의한 고열도 돌보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여 동만에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80~90%가 〈민생단〉이거나 그 련루자들이라고 규정하는 배타적인 극좌분자들을 반대하여 반〈민생단〉투쟁에서의 극좌적인 편향이 일본제국주의의 울가미에 걸렸다는것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동지들을 믿고 단결하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반일적요소를 가진 모든 혁명가들 및 인민들과 손을 잡고 반일의 한점에 단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생단〉에 대해서는 소수의 주동분자를 적발하여 엄격히 처단하는 동시에 무의식중에 그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투사들과 인민들을 단결시키고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적들의 간계에 맞서 싸울수 있게 교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몸소 여러 유격구들에 나가시여 좌경적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안산지구에서 100여명의 대원들에게 붙어다니던 《민생단》협일자문서보따리를 불살라버리는 대용단을 내리시였고 그들모두를 새로 편성되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단에 받아들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견결하고도 원칙적인 투쟁으로 하여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회세의 비극이며 무지와 몰상식의 극치였던 반《민생단》투쟁의 사나운 풍운은 가서지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은 위기에서 구원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력에서 《민생단》감투는 벗겨졌고 억울한 루명을 쓰고 처형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은 회복되었으며 공개적방법으로 단행된 좌경분자들의 음모는 여지없이 분쇄되였다.

국제당은 반《민생단》투쟁을 비롯한 동만당의 일부 활동에서 엄중한 좌경적실책이 있었다는것을 지적하였으며 좌경적오류를 극복하기 위하여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원칙적인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홍왜회의를 계기로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후과를 가서내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 수천수만에 달하는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운명을 구원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귀중한 공적중의 공적이였다.

이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일시적좌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격으로 이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홍왜회의를 통하여 다음으로 민족해방의 구호를 들고나가는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던 배타주의자들과 좌경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선혁명가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주적권리를 확고히 고수하시였다.

다홍왜회의에서는 조선혁명가들이 추켜든 민족해방의 구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

는데 대하여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가들이 내세우고있는 민족해방의 구호가 《민생단》에서 만들어낸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구호와 같으며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된다는 좌경배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 논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가들이 제기하고있는 민족해방의 구호는 일제가 《민생단》에 줘여준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구호와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가들이 내세운 민족해방의 구호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조국을 해방하며 우리 인민이 착취없고 압박없는 자주적인 새 사회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부터 내놓은 구호라는것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을 내걸고 조선혁명가들이 민족해방의 구호를 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다른 나라 혁명가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혁명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견해로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고 단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동만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승리, 조선 민족해방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대신할수도 없는 조선혁명가들과 조선인민의 자주적권리이며 신성한 의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강토와 도탄에 빠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혁명가들은 어느때, 어디에서 투쟁하든 절대로 조선민족해방의 구호를 버릴수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가들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피흘려 싸웠으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을 마치시면서 회의에서 논의되고있는 문제들은 혁명투쟁에서 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원칙적립장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인것만큼 제기된 문제들을 혁명가들의 립장에서 팽정하게 검토비판하고 범한 오류를 대담하게 시정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회의과정에 저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논리정연하고 원칙적인 론박앞에서는 머리를 수그리고말았다.

다홍왜회의에서 시작된 논쟁은 그해 3월에 열린 요영구회의에서도 계속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위대한 수령님의 립장을 지지하였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의견상이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미결로 남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 회의의 론점에서 핵으로 되어있는 몇가지 문제들을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받기 위하여 만주성당 파견원과 공청 동만특위를 모스크바에 보내기로 하시였다.

다홍왜회의의 소식은 삽시에 두만강연안의 모든 유격구들에 전해졌으며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끝없는 환희와 재생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더 높이 우러르며 따르게 되였다.

참으로 다홍왜회의는 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위협에 직면하였던 조선혁명을 구원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심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따라 보다 힘차게 전진해나

갈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한 출판물에서는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이 조선공산당의 해산, 일국일당주의에 의한 복잡한 국제적조건, 민족의 대립을 잉태하면서 재〈만〉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인이 직면한 곤란한 조건밑에서…재〈만〉조선인의 특수한 조건을 국제적인 혁명임무와 자기 나라의 혁명임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술전략의 면에서 구체화하는 가운데 **김일성**은 점차 주체사상을 확립하고 조선혁명에 대한 지도성을 확립하여 가는 과정을 보게 될것이다.》라고 썼다.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고수해나가는것은 오늘도 우리 민족과 공화국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요구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성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신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주체로선을 확고히 옹호고수해나감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